

#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에 보이는 가능동사에 관한 일고찰

- 三馬의 滑稽本과 비교를 중심으로 -

金 鎔 均\*

(e-mail: kygyun@cau.ac.kr)

---

## 目 次

---

1. 서론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3. 가능동사의 출현 현황 및 분석 결과
  4.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
  5. 결론
-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근세후기의 日本語자료인 享和~文化期(1801~1817)의 十返舎一九(1765~1831, 이하 一九)<sup>1)</sup>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1802~1809)<sup>2)</sup>를 대상으로 가능표현, 그 중에서도 문법사상의 변화 사실로서 주목받는 가능동사에 착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당시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 양상과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능동사란 시대의 변화와 함께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교수, 일본어학

1) 十返舎一九(1765~1831)는 근세후기의 黄表紙·合卷·滑稽本の 작가로서 당시의 대표적인 滑稽本 『浮世風呂』(1809~1813)와 『浮世床』(1813~1814)의 작가인 式亭三馬(1776~1822, 이하 三馬)와 비견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2) 『東海道中膝栗毛』는 一九의 명성을 드높인 滑稽本으로서 日本式 滑稽本の 유행의 토대가 된 것으로 근세후기 日本語자료로 이용되는데, 특히 初編~五編은 江戸語자료로서 六編~八編은 上方語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室町期(1333~1603)에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동사의 활용방식(강변화·약변화·혼합변화)에서 보면 강변화에서 약변화로 바뀌어 형태상으로는 물론 의미상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4단(5단)활용동사인 「行く」「負う」「聞く」「食う」「探す」「立つ」「走る」「話す」「読む」 등이 「-ことができる」의 의미인 하1단활용동사인 「行ける」「負える」「聞ける」「食える」「探せる」「立てる」「走れる」「話せる」「読める」 등으로 활용방식이 바뀐 것을 가리킨다.

일본어 변천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능동사는 최초로 室町期에 그 용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sup>3)</sup>. 그리고 그 후 근세전기의 점진적인 증가와 후기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sup>4)</sup> 점차로 세력이 확대되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 즉 가능표현 중에서 가장 다용되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세전기까지 세력이 강한 가능표현 「-れる」형을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가능동사가 세력을 확대하여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능동사의 발달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靑岡昭夫의 지적과 같이 기존의 「-れる」형은 가능표현 이외에도 수동·존경·자발 표현으로도 사용되어 해석상 혼동이 일어나기 쉬웠다는 점이 가능동사의 발달 배경이 되었다<sup>5)</sup>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의 지적과 같이 언어의 편의성 예를 들면 가능동사 「読める」의 음절수가 3음절로, 4음절인 가능표현 「読まれる」보다 음절수가 적어 발음하기 쉬운 데 그 원인이 있다<sup>6)</sup>는 설이다. 전자와 후자의 설을 종합하면 가능동사의 발달 배경에는 언어의 변화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이른바 단순화와 합리화가 그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가능동사에 대하여 근세후기의 滑稽本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로는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를 대상으로 한 湯沢幸吉郎<sup>7)</sup> 및 佐々木綾의 연구<sup>8)</sup>와, 三馬의 滑稽本을 대상으로 한 靑岡昭夫<sup>9)</sup>·松村明<sup>10)</sup>·小松寿雄<sup>11)</sup>·靑木博史<sup>12)</sup> 등의 연구, 그리고 근래 遲速 차이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金銘均<sup>13)</sup>가 있다. 다만, 후자의 체계적인 연구와는 달리 전자 즉 『東

3) 湯沢幸吉郎(1981) 『室町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227

4) 靑木博史(1996) 「可能動詞の成立について」 『語文研究』 81、pp.45-56

5) 靑岡昭夫(1967) 「江戸語・東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変遷について」 『言語と文芸』 54、p.58

6) 金銘均(2013)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可能동사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29,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270

7) 湯沢幸吉郎(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明治書院、pp.243-244

8) 佐々木綾(1993) 「可能動詞についての考察」 『鶴久教授退官紀念国語学論集』、桜楓社、p.444

9) 靑岡昭夫, 前掲書(5), pp.54-63

10) 松村明(1972) 『国語史概説』、秀英出版、pp.209-210

11) 小松寿雄(1982) 「近代の文法Ⅱ(江戸篇)」 『講座国語史4·文法史』、大修館書店、pp.600-603

12) 靑木博史, 前掲書(4), pp.52-53

13) 金銘均, 前掲書(6), pp.261-281

『東海道中膝栗毛』를 대상으로 한 湯沢幸吉郎와 佐々木綾의 연구는 몇몇 용례의 출현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연구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가능동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東海道中膝栗毛』를 대상으로,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각도(문체,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에서 접근하여 특히 동종 자료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로, 비슷한 시기 즉 文化期(1804~1817)의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 5종(『戲場粹言幕の外』(1806) 『醜醜氣質』(1806) 『浮世風呂』 『浮世床』 『大千世界楽屋探』(1817))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sup>14)</sup>과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sup>15)</sup> 및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sup>16)</sup>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東海道中膝栗毛』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당시의 가능동사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 여부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の 결과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상이하면 상이한 대로 그 결과는 향후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가능동사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4) 金鎔均, 前掲書(6), pp.268-278에 의하면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① 가능동사는 상당히 진전된 발달 양상을 보인다.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③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중지·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⑥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15) 金鎔均(2014a)의 「上方洒落本에 보이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고찰」(『比較日本學』 31, 漢陽大學校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77-188)에 의하면 上方洒落本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① 上方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滑稽本の 진전된 발달 양상과는 달리 병용기의 양상을 보인다.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③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중지·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⑥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16) 金鎔均(2014b)의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日本文化學報』 63, 韓國日本文化學會, pp.58-66)에 의하면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①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上方洒落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③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중지·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⑥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연구 자료로는 근세후기의 日本語자료인 享和~文化期の 滑稽本인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初編~八編)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 텍스트로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62』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범위는 『東海道中膝栗毛』에 보이는 가능표현을 대상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동사 중에서는 4단활용동사에만 제한하였다<sup>17)</sup>.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 (1) 가능동사(「行ける」「負える」「聞ける」「食える」「探せる」「立てる」「走れる」 등)
- (2) 4단활용동사 + 「-れる」형
- (3) 4단활용동사 + 「-ことができる」형
- (4) 4단활용동사 + 「-得る」형

그리고 위와 같은 4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東海道中膝栗毛』의 初編~八編에 출현하는 가능표현을 전부 추출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능동사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능표현 중에서 가능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용률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遲速 차이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문체와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으로 나누어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선행 연구로, 전술한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에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과 비교하는 한편,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에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과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가능동사의 출현 현황 및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먼저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初編]~[八編]에 나타나는 가능표현(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의 구체적인 현황을 문체(지문과 회화문)와 활용형(미연형, 연용형, 중지·연체형, 이연형), 음절수(3음절, 4음절, 5음절)와 단순동사 및 복합동사로 분류하여 <표1>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17) 본 연구에서 대상을 4단활용동사에만 제한한 이유는 가능동사가 기본적으로 4단활용동사에서 파생되어 객관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4단활용동사 내부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이다. 이에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단활용동사 외의 가능표현인 동사 + 「-れる」형, 동사 + 「-ことができる」형, 동사 + 「-得る」형은 조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표1> 가능표현의 출현 현황

자료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
			3음절	4음절	5음절			
享 和	[1]初編(1802)	미연형	1			5(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1)					
	[2]二編(1803)	미연형	3			3		
		연용형	2					
		종자-연체형						
文 化	[3]三編(1804)	미연형	6			5(3)		
		연용형						
		종자-연체형	1	1				
		이연형						
	[4]四編(1805)	미연형				6(1)<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					
	[5]五編(1806)	미연형	4			15(1)		
		연용형	3					
		종자-연체형	(1)					
		이연형						
	[6]六編(1087)	미연형	3			4(1)<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2					
		이연형						
	[7]七編(1808)	미연형	3			6		
		연용형						
		종자-연체형	1					
	[8]八編(1809)	미연형	1			2(2)		
		연용형	1					
		종자-연체형						
		이연형						

\* 숫자는 단순동사의 회화문, ( ) 안의 숫자는 단순동사의 지문, < > 안의 숫자는 복합동사의 회화문의 용례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표1>을 토대로 가능표현 중에서 가능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2>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2> 가능동사의 사용률(%)

자료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
東海道中膝栗毛(初編~八編) (1802~1809)		39 (41.5)	55 (58.5)	0 (0.0)	0 (0.0)

이와 더불어 『東海道中膝栗毛』에 출현하는 가능동사의 구체적인 용례를 연

어수의 순으로 <표3>으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3> 가능동사의 구체적인 용례(별개어수)

吞める(11) 食える(9) 読める(7) 負える(3) 解せる(3) 持てる(2) 書ける(1) 切れる(1)  
話せる(1) 踏める(1)

\* ( ) 안의 숫자는 연어수를 의미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그 발달 과정 속에서 문체와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표2>를 통하여 그 발달 과정은 가능표현 「-れる」형, 가능동사, 「-ことができる」형·「-得る」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표3>을 통하여 별개어수와 연어수의 확인이 가능함과 동시에 3음절 가능동사, 다시 말해 소음절 동사에 있어서 진일보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4.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

전술한 가능표현의 출현 현황을 나타낸 <표1>과 가능동사 사용률을 나타낸 <표2>, 그리고 가능동사의 구체적인 용례를 예시한 <표3>과 함께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 ①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三馬의 滑稽本보다 낮게 나타난다.
-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 ③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중지·연체형=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 ⑥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경향①이다.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이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보다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종 자료일지라도 동일한 문법

변화 현상이 작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양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4>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4>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와 三馬의 滑稽本の 可能동사 사용률(%)

자료 \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
東海道中膝栗毛 (1802~1809)	39 (41.5)	55 (58.5)	0 (0.0)	0 (0.0)
三馬의 滑稽本 5種 <sup>18)</sup> (1806~1817)	96 (62.0)	57 (36.8)	1 (0.6)	1 (0.6)

<표4>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가능표현 중에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41.5%로 나타난다. 즉 용례 자체가 보이지 않는 「-ことができる」형(0.0%)과 「-得る」형(0.0%)보다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만, 「-れる」형(58.5%)보다는 낮게 나타나 이른바 병용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①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 (弥二)めしもくへぬ。ナントきた八かうだ。(二編、100-4)  
(弥二)ホンニこいつ、たゞはおかれぬ。(上同、111-14)
- (2) (てい主)エ、そふもつちやアすられないハ。おへないひやうたくれめだ(上同、130-7)
- (3) (弥二)ナニまだくへやす (五編、251-2)  
(弥二)あめへもよらかにして見なせへ。こんなちいさなものは、いくらでもくはれる  
(上同、251-10)

즉 (1)과 (2)는 동일한 인물에 의하여 동일한 음절 조건 하에서, (3)은 동일한 인물에 의하여 동일한 음절 조건 하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가능동사와 가능표현 「-れる」형이 동시에 사용된 예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 양상이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sup>19)</sup>과 江戸洒落本<sup>20)</sup>은 차치하더라도 동종 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の 양상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三馬의 滑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18) 金鎔均, 前掲書(6), p.267

19) 金鎔均(2014a), 前掲書(15), p.179에 의하면 『東海道中膝栗毛』와 비슷한 시기인 文化期の 上方洒落本에 있어서 가능표현은 「-れる」형(70.6%), 가능동사(29.4%), 「-ことができる」형(0.0%)·「-得る」형(0.0%)의 순으로 나타난다.

20) 金鎔均(2014b), 前掲書(16), p.57에 의하면 『東海道中膝栗毛』와 비슷한 시기인 文化期の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표현은 가능동사(54.3%), 「-れる」형(45.7%), 「-ことができる」형(0.0%)·「-得る」형(0.0%)의 순으로 나타난다.

62.0%로 나타나 『東海道中膝栗毛』(41.5%)보다 진전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체계적인 가능동사의 변천사 고찰 시 중요한 사실로 여겨진다. 동종 자료이면서 비슷한 시기의 자료라 할지라도 작자에 따라 동일한 문법변화 현상의 반영에 있어서 그 차이가 인정될 수 있기<sup>21)</sup>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자료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니라 작자의 언어사용 의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三馬의 경우에는 당시 구두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한 결과 가능동사의 사용률이 높은 데 비하여, 一九는 당시 구두어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극적 자세 즉 가능동사의 사용에 대하여 일종의 꺼리는 의식이 그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작용하여 가능동사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一九는 三馬와는 달리 당시 구두어에서 사용된 가능동사보다 근세전기 및 중기까지 활발하게 사용된 가능표현 「-れる」형을 여전히 선호하여 그 결과가 『東海道中膝栗毛』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언어 고찰 시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보다 三馬의 滑稽本, 특히 『浮世風呂』 『浮世床』<sup>22)</sup> 등이 당시 언어 연구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에는 위와 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東海道中膝栗毛』에는 三馬의 滑稽本에 출현하는 다음의 용례(각 1例)<sup>23)</sup> 즉,

(4) 其代には江戸へ金を持って帰ることは出来ません。(浮世風呂、236-6)

(5) 出し廻へもしねへくせに出て往といふ。(上同、98-1)

등의 「-ことができる」형과 「-得る」형과 같은 가능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까지 「-ことができる」형과 「-得る」형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東海道中膝栗毛』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일본어 변천사 고찰 시 대부분의 문법변화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경향<sup>②</sup>

21)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金鎔均(2006)의 「紀海音의 世話淨瑠璃에 있어서 活用册式の變化에 관한 一考察 -上下二段活用動詞 및 助動詞의 一段化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 29, 大韓日語日文學會, p.2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즉 동일한 문법변화 현상인 2단활용의 1단화 고찰 결과, 동종 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世話淨瑠璃의 경우 당시 淨瑠璃 작자인 紀海音(1663~1742)과 近松門左衛門(1653~1724)에 따라 진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近松門左衛門의 世話淨瑠璃에 있어서 변화 비율이 紀海音의 世話淨瑠璃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22) 林巨樹·池上秋彦編(1979)의 『国語史辞典』(東京堂出版, p.150(小松寿雄執筆))에 의하면 三馬의 滑稽本은 당시 절호의 구어자료이고, 특히 『浮世風呂』와 『浮世床』는 江戸語의 보고라고 지적된다.

23) 金鎔均, 前掲書(6), pp.270-271



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체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을 토대로 지문과 회화문 간의 가능동사 사용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가능동사의 문체별 사용률(%)

자료	문체	지문	회화문
東海道中膝栗毛 (1802~1809)		3 (7.7)	36 (92.3)

<표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체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회화문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92.3%)은 지문(7.7%)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②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それでもさつぱりくへぬくへぬ……爰もとは鞍くらのあふみがふちなれど踏ふみまたがりて通とられもせず  
(三編、139-4)

근접한 예문으로 전자(「くへぬくへぬ」)가 회화문의 용례, 후자(「通られ」)가 지문의 용례로 이를 통하여 양자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회화문에서의 변화 속도가 지문보다 빠르다는 문체적인 면에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경향②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처럼 문체 즉 지문과 회화문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문체적인 성격상 후자보다는 규범성이 우선시되는 전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시 구두어에서 사용된 언어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는 회화문과는 달리, 지문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sup>24)</sup>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회화문에 비하여 변화가 느리게 진행된 지문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예

24) 金鎔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문을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7) 御関所の手形<sup>おせきしょ てがた</sup>をうけとり、ふめるものは、みたをしやへさづけて金<sup>かね</sup>にかへ、(初編、52-14)  
 (8) ハ、よめたと、心にうなづき、すぐにその下駄をはいて、(上同、74-3)  
 (9) むくつけき客もこよひはもてるなり(五編、307-2)

그리고 경향③은 활용형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을 토대로 각 활용형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6>으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6> 가능동사의 활용형별 사용률(%)

활용형	미연형	연용형	종지·연체형	이연형
자료				
東海道中膝栗毛 (1802~1809)	21 (53.8)	9 (23.1)	9 (23.1)	0 (0.0)

<표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활용형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연형(53.8%)이 가장 앞선 가운데 종지·연체형(23.1%)=연용형(23.1%), 이연형(0.0%)의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③의 반영, 그 중에서도 미연형에 있어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가능동사의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こんびら)どふしてどふして。あなた口ではそふおつしやるが、そのよふにはくへぬものじやて(弥次)ナニくへぬことがあるものだ(五編、251-2)  
 (11) (弥二)出すものも出すものもへんちきな物ばかりで、もふ酒もめぬめぬ  
 (六編、362-10)

위의 (10)(11)은 모두 근접한 예문 속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미연형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진일보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연형보다 변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 종지·연체형과 연용형의 가능동사가 등장하는 예문을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 (12) (弥二)ナニそりやアのめる酒でも、(三編、165-10)  
 (13) (弥二)きさまたちの赤鯛<sup>あかい鯛</sup>でナニきるものか(四編、192-10)

- (14) (北八)ナニしびんの酒がのめるものか (六編、331-8)
- (15) すましたどんぶんり、それでどふしてくへるものか (七編、417-13)
- (16) (侍)ソノ又どろぼうを、ごまの灰といふじやナ。なるほど解せた解せた (二編、103-3)
- (17) (手代)イヤおどけたおかたじや。ハアよめた。(五編、293-15)
- (18) (ゐんきよ)ハ、よめたわいの。こなんは、おもてのさかやのおきやくじやな。(八編、438-16)

위의 (12)(13)(14)(15)는 종지·연체형, (16)(17)(18)은 연용형의 가능동사가 등장하는 예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활용형에 따라 遲速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③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볼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종지·연체형이 연용형보다 빠르게 진행된 三馬의 滑稽本과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는 달리 『東海道中膝栗毛』의 경우에는 종지·연체형과 연용형이 동등한 사용률을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서 자료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종지·연체형과 연용형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의 원인은 향후 타종 자료를 포함하여 좀 더 조사 자료를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가능동사가 이처럼 미연형에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제 활용형 즉 종지·연체형 및 연용형과 이연형보다 빠르게 변화가 진행된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역사적인 배경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일찍이 室町期에 출현한 미연형의 가능동사 용법이 고착화되어 이후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는 것<sup>25)</sup>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음절 동사와 다음절 동사 간에 따라 遲速 차이가 나타난다는 경향④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음절수에 따른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과 <표3>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7>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7> 가능동사의 음절수별 사용률(%)

음 절 수	3음절	4음절	5음절
자료			
東海道中膝栗毛 (1802~1809)	38 (97.4)	1 (2.6)	0 (0.0)

<표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절수에 따라 遲速 차이가 인정되어 3음절 가

25) 金鎔均, 前掲書(6), p.274

능동사(97.4%), 4음절 가능동사(2.6%), 5음절 가능동사(0.0%)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소음절 동사인 3음절 가능동사가 단연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④ 즉, 소음절 동사와 다음절 동사 간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9) (弥二)ハ、アなんだ。コリヤアのめるは (初編、62-2)

(弥二)ソリヤ人のことをいふ、うぬがなんにもしらねへな。<sup>〃</sup>湯がわいたらあつくてはいられるものか。(上同、72-7)

(20) (弥次)ナニくへぬことがあるものだ。(五編、251-3)

(弥次)いぬへまいおとこだ。そしてマアうつむかれるほどに、なぜそんなに、かたくいわせた。(上同、300-3)

(21) (弥次)ヲツヲツ、なるほどいゝ酒だ。水ツぼくてねからのめぬ。(七編、387-6)

(弥次)ハイハイ、むかふがさつぱり見へねへで、あるかれぬ (上同、393-1)

위의 (19)~(21)은 동일한 인물에 의하여 3음절인 경우에는 가능동사(「のめる」 「くへぬ」 「のめぬ」)로, 다음절인 경우에는 가능표현인 「-れる」형(「はいられる」 「うつむかれる」 「あるかれぬ」)이 사용된 것으로, 소음절 동사가 다음절 동사보다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음절수의 다소에 따라 遲速 차이가 보이는 경향④ 역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遲速 차이 즉 소음절 동사가 다음절 동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음절수의 다소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음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변화가 용이하다는 이른바 언어의 편의성이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sup>26)</sup>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향⑤는 구조적으로 볼 때 전술한 경향④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럼 여기에서 가능동사 내부 즉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경향⑤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자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과 <표3>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8>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金銘均(2014a), 前掲書(15), p.274

<표8> 가능동사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의 사용률(%)

자료 \ 동사	단순동사	복합동사
東海道中膝栗毛 (1802~1809)	39 (100)	0 (0.0)

<표8>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동사의 가능동사 비율은 복합동사보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위로 나타난다. 전자의 가능동사 사용률(100%)은 용례 자체 즉 1例도 확인되지 않는 복합동사의 가능동사(0.0%)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단순동사와 복합동사에 따라 遲速 차이가 나타난다는 경향⑤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처럼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구조적으로 소음절일 수밖에 없는 전자와, 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다음절일 수밖에 없는 후자의 단어 구성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전술한 경향④ 즉, 소음절 동사가 다음절 동사보다 변화 속도가 빠른 원인으로 추정되는 음절수의 다소와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음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변화가 용이하다는 언어의 편의성이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절수가 적은 단순동사가 구조적으로 음절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복합동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용이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sup>27)</sup>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가 긍정표현보다 빠르다는 경향⑥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 사용률의 비교가 필요한데, 자료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9>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9> 가능동사의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의 사용률(%)

자료 \ 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
東海道中膝栗毛 (1802~1809)	18 (46.2)	21 (53.8)

<표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자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 사용률(53.8%)이 긍정표현(46.2%)

27) 金鎔均(2014b), 前掲書(16), p.65

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⑥ 즉, 부정표현과 긍정표현의 가능표현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2) (北八)とんだことをする。これでのられるもんか。(三編、148-10)

(北八)ヲヤ<sup>ま</sup>味そふなぼたもちがある。……ヤアこいつはくへぬ(上同、174-10)

(23) (弥次)コウ酒<sup>さけ</sup>はいゝのがあるかの。……<sup>だうちう</sup>道中のものはねから くへぬ。

(五編、236-12)

(弥次)コウなんとばかばかしい。どふして石がくはれるものか(上同、266-4)

위의 (22)는 동일한 인물에 의하여 동일한 음절 조건 하에서, (23)은 동일한 인물에 의하여 동일한 음절 조건 하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가 긍정표현의 가능동사보다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부정표현과 긍정표현에 따라 遲速 차이가 보이는 경향⑥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처럼 양자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전술한 경향③ 즉, 미연형에 있어서 가능동사가 종지·연체형 및 연용형과 이연형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능동사가 최초로 등장하여 室町期부터 발달한 미연형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용법이 고착화되어 이른바 미연형의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부정표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가, 후대에도 긍정표현보다 부정표현의 발달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향①은 동종 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선행 연구인 三馬의 滑稽本과와 다르다는 점에서, 경향②③④⑤⑥은 동종 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선행 연구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상이하면 상이한 대로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를 통하여 동종 자료이면서 비슷한 시기의 자료라 할지라도 작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단순히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에만 나타나는 사실이 아닌, 일본어의 변천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5. 결론

어느 시대이든 특별히 관계없이 어떤 언어 연구 결과가 그 분야에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자료를 통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sup>28)</sup>. 특히 그와 같은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 다시 말해, 그 결과가 갖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식하여 근세후기의 日本語자료인 享和~文化期の 一九의 滑稽本 『東海道中膝栗毛』를 대상으로 가능동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東海道中膝栗毛』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여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비교의 관점(문체와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에서 전체적인 경향과 각각의 遲速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로, 동종 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과 비교하는 한편,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과도 비교하면서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선행 연구로 동종 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에 보이는 경향과 일치하는 사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 ②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종지·연체형=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③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 ④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 ⑤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⑥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三馬의 滑稽本보다 낮게 나타난다.

요컨대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東海道中膝栗毛』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다

28) 金鎔均(2012) 「黄表紙에 나타나는 단정표현 「た」의 정착에 관한 고찰」 『日本學報』 90, 韓國日本學會, p.12

양한 양상 즉 문체,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에 따라 각기 遲速 차이를 보이면서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동종 자료인 三馬의 滑稽本과도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①②③④⑤는 기존의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선행 연구인 三馬의 滑稽本과는 물론 타종 자료인 上方洒落本 및 江戸洒落本の 경향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⑥은 비슷한 시기의 동종 자료라 할지라도 그 발달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 가능동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금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江戸語자료인 江戸噺本과 黄表紙를 대상으로 특히 江戸洒落本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당시 가능동사의 발달 양상을 파악하는 데 진력하여 체계적인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参考文献】

- 金鎔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 \_\_\_\_\_ (2006) 「紀海音의 世話淨瑠璃에 있어서 活用形式의 變化에 관한 一 考察 -上·下二段活用動詞 및 助動詞의 一段化를 중심으로 -」 『日語日文學』 29, 大韓日語日文學會, p.29
- \_\_\_\_\_ (2012) 「黃表紙에 나타나는 단정표현 「だ」의 정착에 관한 고찰」 『日本學報』 90, 韓國日本學會, p.12
- \_\_\_\_\_ (2013)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29, 漢陽大學校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261-281
- \_\_\_\_\_ (2014a) 「上方洒落本에 보이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31,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77-188
- \_\_\_\_\_ (2014b)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學報』 63, 韓國日本文化學會, pp.57-66
- 青木博史(1996) 「可能動詞の成立について」 『語文研究』 81, pp.45-56
- 小松寿雄(1982) 「近代の文法Ⅱ(江戸篇)」 『講座国語史4·文法史』、大修館書店、pp.600-603
- 佐々木綾(1993) 「可能動詞についての考察」 『鶴久教授退官紀念国語学論集』、桜楓社、pp.47-48
- 鶴岡昭夫(1967) 「江戸語·東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変遷について」 『言語と文芸』 54, pp.54-63
- 林巨樹·池上秋彦編(1979) 『国語史辞典』、東京堂出版、p.150(小松寿雄執筆)
- 松村明(1972) 『国語史概説』、秀英出版、pp.209-210
- 湯沢幸吉郎(1981) 『室町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227
- \_\_\_\_\_ (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明治書院、pp.242-244

## 要 旨

本研究では近世後期、特に享和～文化期(1801～1817)の日本語資料である一九の滑稽本『東海道中膝栗毛』(1802～1809)における可能動詞について考察した。特に、『東海道中膝栗毛』に現れる可能動詞の様々な分析結果に基づき、比較の観点(文体と活用形、音節数、単純動詞と複合動詞、肯定表現と不定表現)に重点を置きながら可能動詞の発達過程の中で見られる全体的な傾向とその原因についても考察した。これと併せて先行研究で、同種資料であるとともに同時期の資料である三馬の滑稽本と、他種資料の上方洒落本及び江戸洒落本に現れる全体的な傾向と比べながら検討した。

その結果、幾つか注目に値する事実が明らかにされたかのように思う。まず先行研究である三馬の滑稽本と、他種資料の上方洒落本及び江戸洒落本の傾向と大略一致する事実をまとめると、次の通りである。

- ① 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会話文の変化速度は地文より速い。
- ② 活用形から見ると、未然形・終止・連体形＝連用形、已然形の順に進行している。
- ③ 音節数から見ると、少音節動詞の変化速度は多音節動詞より速い。
- ④ 単純動詞の変化速度は複合動詞より速い。
- ⑤ 否定表現の変化速度は肯定表現より速い。

また、一九の『東海道中膝栗毛』を通して新たに明らかにされた事実をまとめると、次の通りである。

- ⑥ 一九の『東海道中膝栗毛』における可能動詞の使用率は三馬の滑稽本より低い。

このような事実の中で、①②③④⑤は先行研究の同種資料である三馬の滑稽本と、他種資料の上方洒落本及び江戸洒落本の傾向と大体一致するということから、一方で⑥は傾向を異にすることから注目すべである。前者を通してこのような事実が単に『東海道中膝栗毛』のみに止まらず、日本語の変遷史的な事実とも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から、後者を通して同時期の同種資料であるといえども、可能動詞の発達は一律的ではなく作者によって異なる様相を見せるからである。要するに、このような研究結果は当時における可能動詞の発達様相を綿密に検討するに当たって示唆するところが少なくない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一九の東海道中膝栗毛、三馬の滑稽本、可能表現、可能動詞、遅速差、傾向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